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브리프
BRIEF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5. 11 Vol 5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T. 055-713-7074 F. 055-713-7093 www.gnwff.or.kr

문정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경남도민이 바라는 여성가족정책 과제

01. 재단 연구 현황
02. 도민 정책 요구
03. 향후 과제

■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특히 새 정부 출범으로 여성가족 정책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의 지속,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은 여성가족정책 방향을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남 여성가족정책의 도민 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재단은 매년 정책과제 선정 시 도민 수요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직접적으로 과제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와 주제의 연구가 시급히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묻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재단에서는 지난 4월 도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 분야 정책에 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음. 도민 요구조사는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에 관한 도민의 전반적인 관심 대상과 주제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과제 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본고는 요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현안보고서[1]를 재정리한 것으로 여성가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 분야 정책 요구 파악
- 조사 기간 : 2025년 4월 중순 ~ 5월 말
- 조사 방법 : 웹 기반 조사방식(홈페이지, SNS, 유관기관 등 홍보)
- 조사 인원 : 경남도민 304명(만19세 이상)
- 조사 항목 : 응답자 기본정보(거주지역, 성별, 연령),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정책대상, 정책주제, 영역별 세부주제에 대한 요구

1) 현안보고서 「경남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도민 인식조사(2025)」를 재정리한 것임

01. 재단 연구 현황

연구 수행 현황

■ '21년부터 '25년(10월 기준)까지 5년간 수행한 연구는 총 99건임
- 유형별로는 자체연구 51건, 현안연구 20건, 수탁연구 28건이 수행되었음
- 주제별로는 양성평등 52건, 일자리 17건, 가족/돌봄 15건, 아동/청소년 8건, 청년 7건임
- 5년 평균 과제 수행 건수는 19.8건임. 유형별 평균 건수는 자체연구 10.2건, 현안연구 3.8건, 수탁연구 5.8건임. 주제별 평균은 양성평등 10.4건, 일자리 3.4건, 가족·돌봄 3건, 아동·청소년 1.6건, 청년 1.4건으로 나타남

표 1 연구실적 총괄표

(단위: 건)

구 분	연구 실적	유형별			주제별				
		자체 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	양성평등	일자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청년
2021년	12	8	2	2	9	1	2	-	-
2022년	24	14	3	7	10	5	6	2	1
2023년	21	10	3	8	12	4	3	2	-
2024년	20	10	5	5	10	3	1	2	4
2025년	22	9	6	7	11	4	3	2	2
합계	99	51	19	29	52	17	15	8	7
5년 평균	19.8	10.2	3.8	5.8	10.4	3.4	3	1.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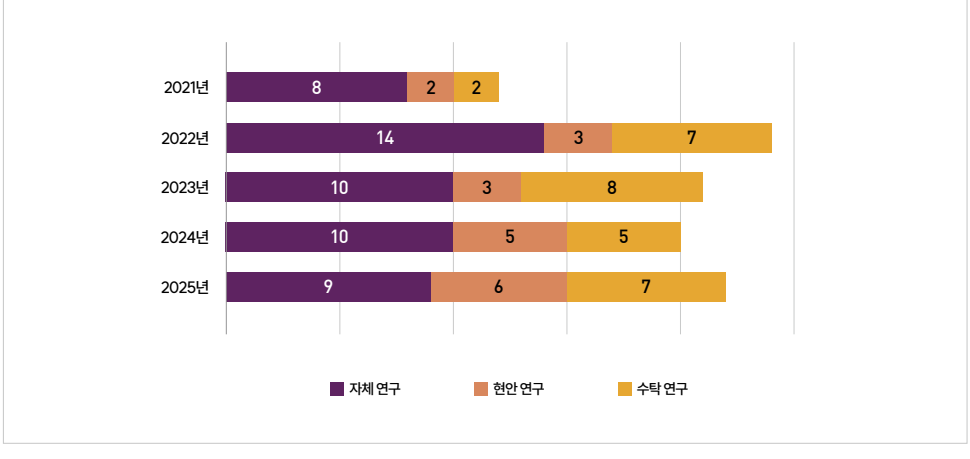
주: 2025년은 10월 기준이며 추진 중인 연구과제를 포함함.

연구 유형별 현황

■ 자체연구는 '21년 8건, '22년 14건, '23년 10건, '24년 10건, '25년 9건으로 평균 10.2건임
■ 현안연구는 '21년 2건, '22년 3건, '23년 3건, '24년 5건, '25년 6건으로 평균 3.8건임
■ 수탁연구는 '21년 2건, '22년 7건, '23년 8건, '24년 5건, '25년 7건으로 평균 5.8건임

그림 1 연구유형별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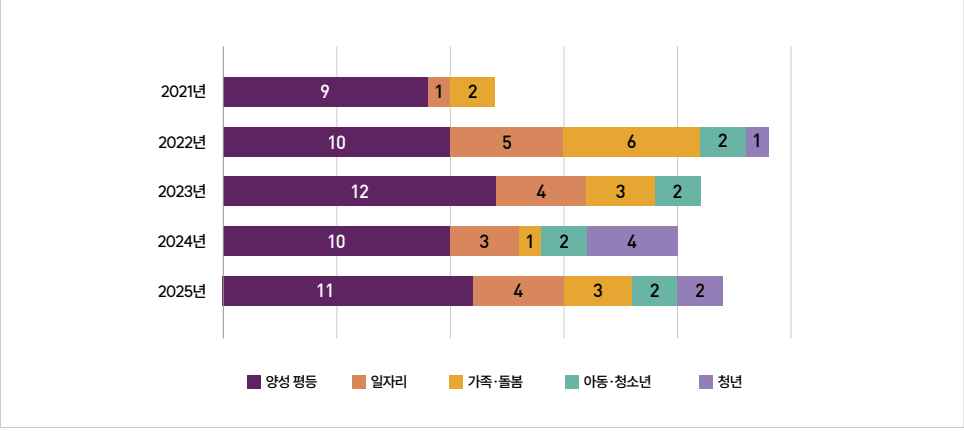


연구 주제별 현황

- 양성평등은 '21년 9건, '22년 10건, '23년 12건, '24년 10건, '25년 11건으로 평균 10.4건임
- 일자리는 '21년 1건, '22년 5건, '23년 4건, '24년 3건, '25년 4건으로 평균 3.4건임
- 가족·돌봄은 '21년 2건, '22년 6건, '23년 3건, '24년 1건, '25년 3건으로 평균 3.0건임
- 아동·청소년은 '22년 2건, '23년 2건, '24년 2건, '25년 2건으로 평균 1.6건임
- 청년은 '22년 1건, '24년 4건, '25년 2건으로 평균 1.4건임

그림 2 연구 주제별 현황

(단위: 건)



세부 주제별 현황

- 5가지 주제별 영역에 대한 세부주제별 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세부 주제별 현황

주제	세부주제
양성평등(52건)	성인지통계(12), 성별영향평가(10), 여성친화도시(6), 여성사(5), 지역성평등지수(5), 성인지예산제도(4), 젠더폭력(3), 여성대표성(2), 도민수요조사(1), 성평등조직문화(1), 양성평등기본계획(1), 여성건강(1), 추진체계(1)
일자리(17건)	여성일자리(5), 성별임금격차(3), 직업교육훈련(3), 창업(2), 기업문화(1), 산업재해(1), 여성기업(1), 여성농업인(1)
가족·돌봄(15건)	보육(5), 아이돌봄(1), 다문화가족(1), 다자녀가구(1), 한부모가족(1), 돌봄노동자(1), 1인가구(1), 가족문화(1), 가족센터(1), 중도입국자녀(1), 고려인주민(1)
아동·청소년(8건)	보호자립아동(1), 어린이안전(1), 아동놀권리(1), 아동학대(1), 아동삶의질(1), 아동통합돌봄(1), 청소년수련원(2)
청년(7건)	청년인구유출(2), 결혼출산 청년인식(2), 고립은둔청년(1), 자립준비청년(1), 기업문화 청년인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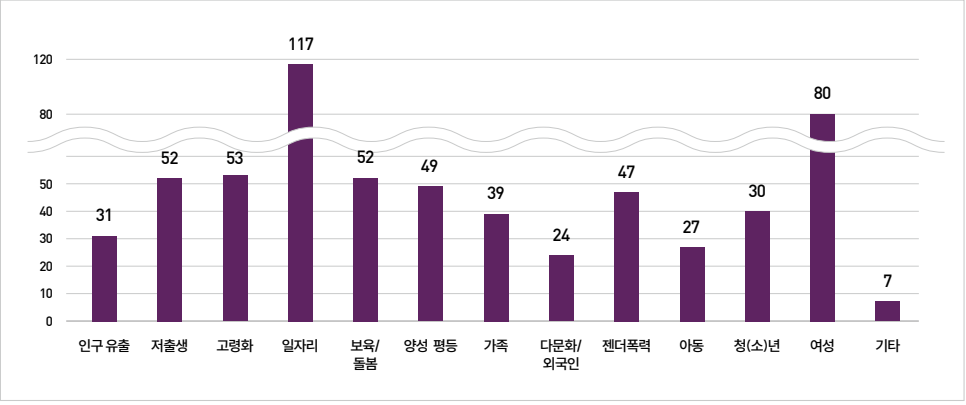
02. 도민 정책 요구

관심 있는 정책 분야

- 평소 관심 있는 정책 분야로는 일자리가 117명(18.2%)으로 가장 많고, 여성 80명(13.2%), 고령화 53명(8.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관심 있는 정책 분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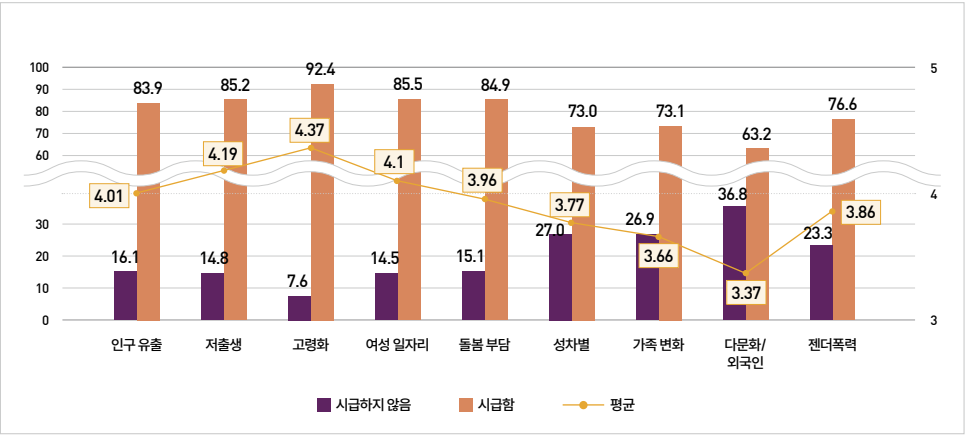


시급한 정책 대응 분야

■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정책 대응이 시급한 정도에 대해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고령화가 4.37점으로 가장 높고, 저출생 4.19점, 여성일자리 4.10점, 인구유출은 4.01점, 돌봄 부담 3.96점, 젠더폭력 3.85점, 성차별 3.77점, 가족 변화 3.66점, 다문화/외국인 3.37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시급한 정책 대응 분야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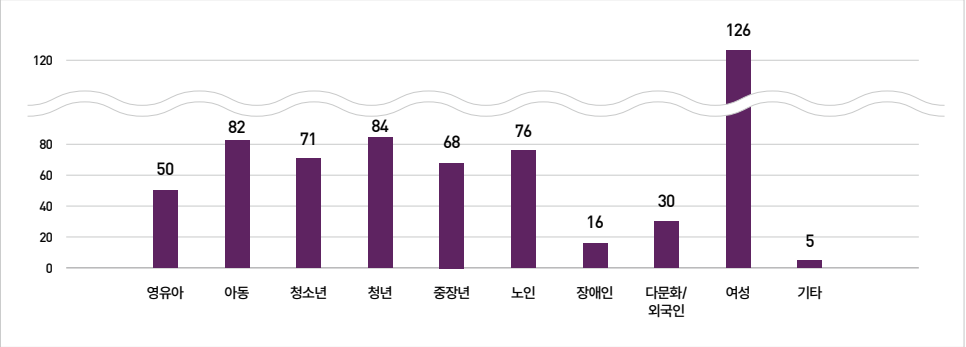


향후 정책 대상

■ 향후 재단의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으로는 여성이 126명(20.7%)으로 가장 많고, 청년 84명(13.8%), 아동 82명(13.5%), 노인 76명(12.5%), 청소년 71명(11.7%), 중장년 68명(11.2%), 영유아 50명(8.2%), 다문화/외국인 30명(4.9%), 장애인 16명(2.6%)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향후 정책 대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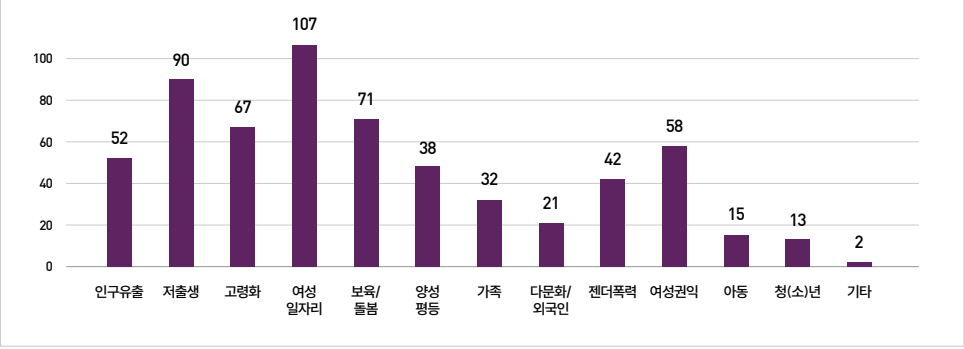


향후 정책 주제

■ 향후 재단의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주제로는 여성일자리가 107명(17.6%)으로 가장 많고, 저출생 90명(14.8%), 보육/돌봄 71명(11.7%), 고령화 67명(11.0%), 여성권익 58명(9.5%), 인구유출 52명(8.6%), 젠더폭력 42명(6.9%), 양성평등 38명(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향후 정책 주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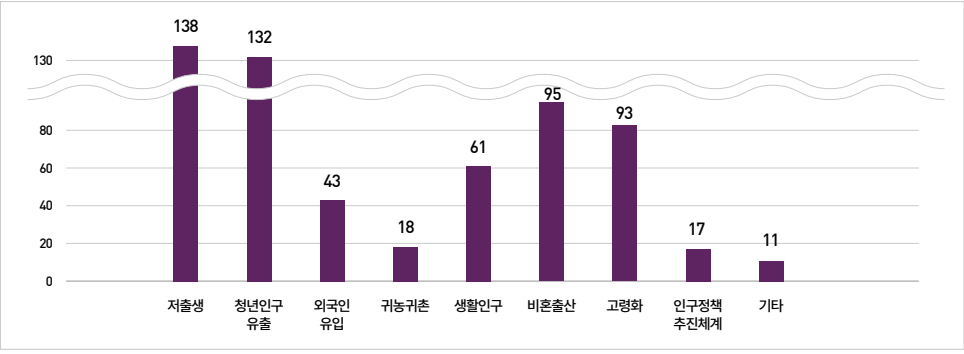


<인구 분야> 연구 주제

■ <인구 분야>에 관한 연구 주제로는 저출생이 138명(22.7%)으로 가장 많고, 청년인구유출 132명(21.7%), 비혼출산 95명(15.6%), 고령화 93명(15.3%), 생활인구 61명(10.0%), 외국인유입 43명(7.1%), 귀농귀촌 18명(3.0%), 인구정책추진체계 17명(2.8%)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인구 분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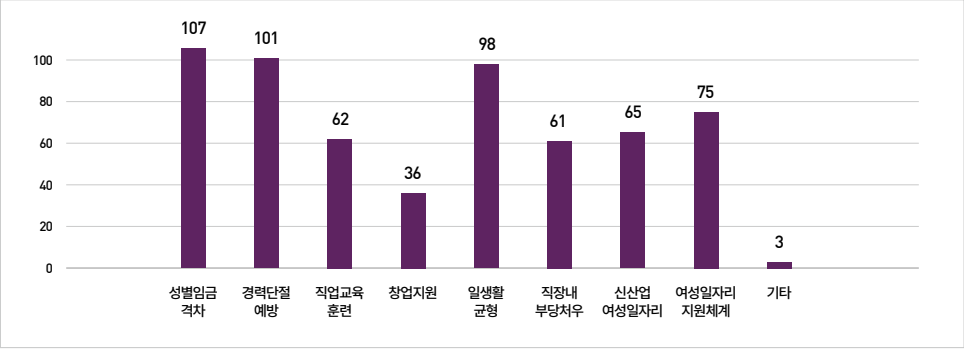


<일자리 분야> 연구 주제

■ <일자리 분야>에 관한 연구 주제로는 성별임금격차가 107명(17.6%)으로 가장 많고, 경력단절예방 101명(16.6%), 일생활균형 98명(16.1%), 여성일자리지원체계 75명(12.3%), 신산업 여성일자리 발굴 65명(10.7%), 직업교육훈련 62명(10.2%), 직장내 부당처우 61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일자리 분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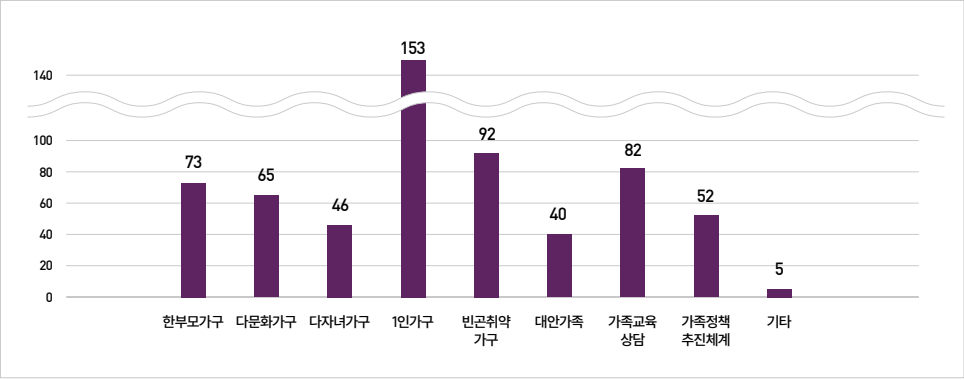


<가족 분야> 연구 주제

■ <가족 분야>에 관한 연구 주제로는 1인가구가 153명(25.2%)으로 가장 많고, 빈곤취약가구 92명(15.1%), 가족교육상담 82명(13.5%), 한부모가구 73명(12.0%), 다문화가구 65명(10.7%), 가족정책추진체계 52명(8.6%), 다자녀가구 46명(7.6%), 대안가족 40명(6.6%)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가족 분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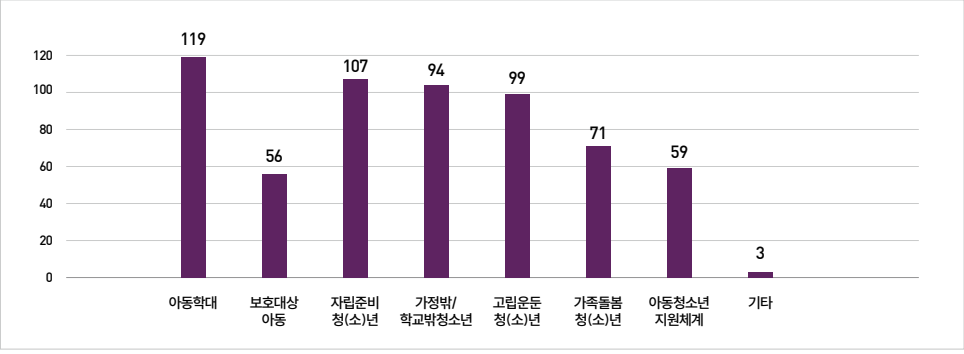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분야> 연구 주제

■ <아동·청소년 분야>에 관한 연구 주제로는 아동학대가 119명(19.6%)으로 가장 많고, 자립준비청(소)년 107명(17.6%), 고립은둔청(소)년 99명(16.3%), 가정밖/학교밖청소년 94명(15.5%), 가족돌봄청(소)년 71명(11.7%), 아동청소년지원체계 59명(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아동·청소년 분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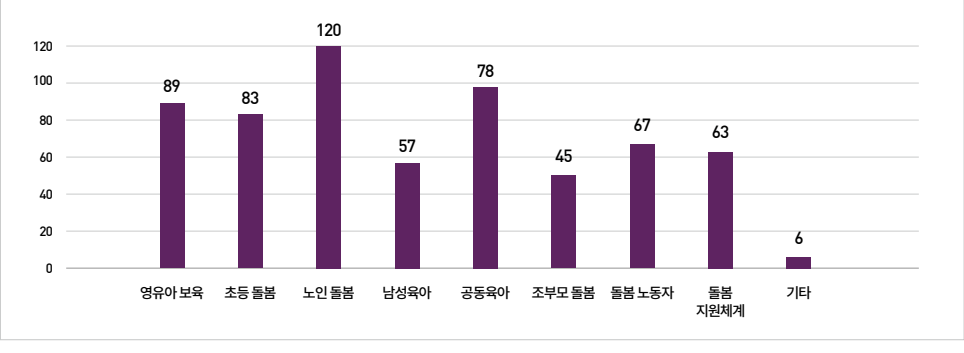


<돌봄 분야> 연구 주제

■ <돌봄 분야>에 관한 연구 주제로는 노인돌봄이 120명(19.7%)으로 가장 많고, 영유아보육 89명(14.6%), 초등돌봄 83명(13.7%), 공동육아 78명(12.8%), 돌봄노동자 67명(11.0%), 돌봄지원체계 63명(10.4%), 남성육아 57명(9.4%), 조부모돌봄 45명(7.4%)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돌봄 분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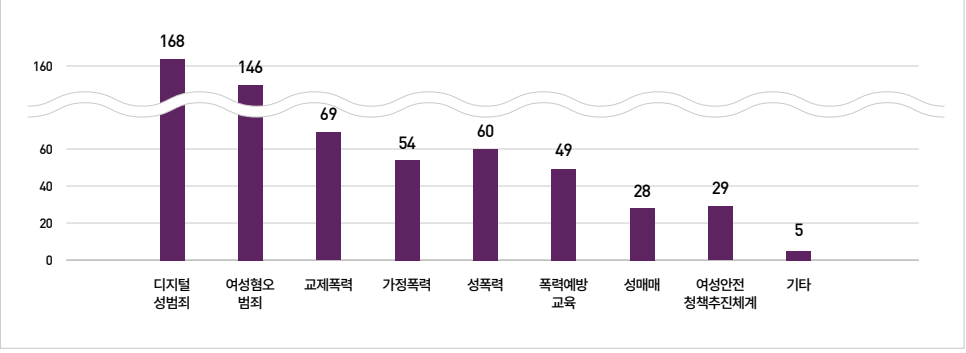


<젠더폭력 분야> 연구 주제

■ <젠더폭력 분야>에 관한 연구 주제로는 디지털성범죄가 168명(27.6%)으로 가장 많고, 여성혐오범죄 146명(24.0%), 교제폭력 69명(11.3%), 성폭력 60명(9.9%), 가정폭력 54명(8.9%), 폭력예방교육 49명(8.1%), 여성안전정책추진체계 29명(4.8%), 성매매 28명(4.6%)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젠더폭력 분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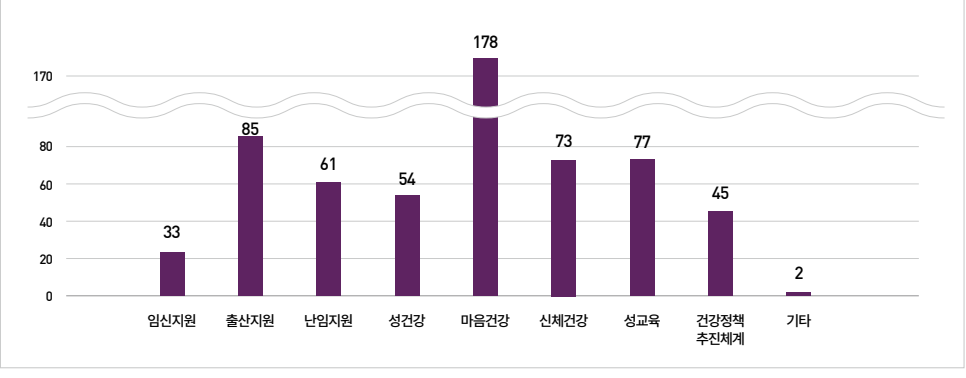


<건강 분야> 연구 주제

■ <건강 분야>에 관한 연구 주제로는 마음건강이 178명(29.3%)으로 가장 많고, 출산지원 85명(14.0%), 성교육 77명(12.7%), 신체건강 73명(12.0%), 난임지원 61명(10.0%), 성건강 54명(8.9%), 건강정책추진체계 45명(7.4%), 임신지원 33명(5.4%)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건강 분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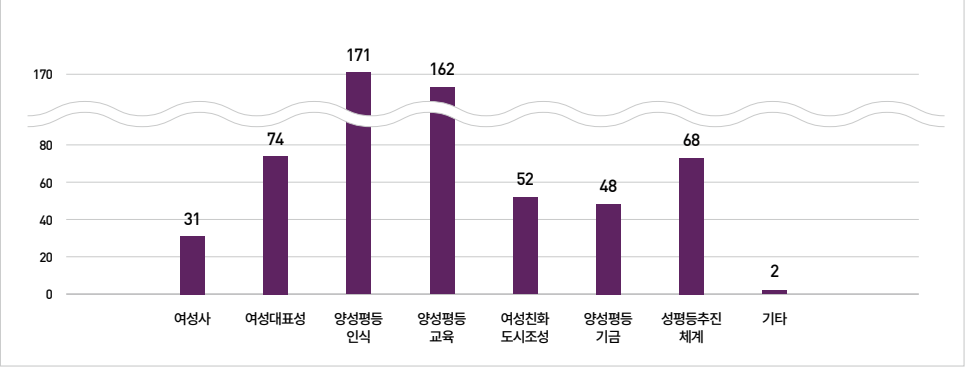


<양성평등 분야> 연구 주제

■ <양성평등 분야>에 관한 연구 주제로는 양성평등인식이 171명(28.1%)으로 가장 많고, 양성평등교육 162명(26.6%), 여성대표성 74명(12.2%), 성평등추진체계 68명(11.2%), 여성친화도시조성 52명(8.6%), 양성평등기금 48명(7.9%), 여성사 31명(5.1%)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 양성평등 분야

(단위: 명)



03. 향후 과제

향후 재단이 수행해야 하는 연구과제

■ 첫째, 도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연구를 수행해야 함. 예를 들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고립은둔 청소년및청년 기본계획」,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등이 해당됨. 「보육계획」은 국가 법령상 지자체 수립 의무가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연구가 필요함

■ 둘째, 재단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음. 경남여성생애구술사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의 사업·제도와 연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이에 해당됨. 예를 들어 매년 발표되는 지역성평등지수 분석,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특정)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임금격차 등의 연구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셋째, 분야별 추진체계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 일자리, 가족, 보육, 돌봄, 여성, 아동·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 전달체계로서 운영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평가,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처우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됨

■ 넷째, 각종 통계집 발간을 위한 연구가 있음. 대표적으로 경상남도 및 시군별 성인지통계 발간을 비롯하여 여성경제활동 백서, 청년통계 등 정책 주제별 또는 대상별 성별 분리 통계 연구가 필요함

■ 다섯째, 경남 18개 시군을 위한 맞춤형 연구가 필요함. 시군별 여성친화도시 및 성인지통계를 비롯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산업분석, 인구정책 등 시군 단위 정책 연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향후 재단에서 수행이 필요한 연구 주제를 분야별 키워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표3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분야별 키워드

구 분	주요 키워드		
인구 분야	• 인구영향평가 • 농어업	• 저출생 종합계획 • 주거지원	• 고령화 • 외국인/유학생
일자리 분야	• 대상별/산업별 일자리 • 신산업 • 직업교육훈련	• 창업/자영업자 • 산업재해	• 가족친화인증기업 • 일생활균형 •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가족 분야	• 조손가족 • 맞벌이가족	• 청소년 (한)부모 • 장애인가족	• 취약위기가정 • 입양/가정위탁 가족
돌봄 분야	• 노인돌봄 • 자기돌봄	• 유보통합(영유아보육·교육) • 돌봄사각지대	• 돌봄공동체 • 남성육아
아동·청(소)년 분야	• 경계선장애/느린학습자 • 진로교육	• 아동청소년 기관종사자 처우 • 가정밖/학교밖 청소년 • 아동친화도시	• 놀이공간 • 청년삶 실태 • 신취약계층 청년
젠더폭력 분야	• 여성혐오범죄 • 교제폭력 / 스토킹	• 학교 성폭력 • 가정폭력	• 폭력피해자지원 • 폭력예방교육
건강 분야	• 정신건강(마음건강) • 성교육	• 임신(유사산, 난임, 중절 등) • 산후조리	• 비(미)혼 출산 • 난자동결
양성평등 분야	• 양성평등정책 개발 • 세대별 젠더갈등	• 소년·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 여성사	• 양성평등기금 • 여성리더(정치인, 관리직)
그 외	• 기후위기와 젠더 • 사교육	• 자살, 고독사, 외로움 • 반려동물	• ESG 경영 • 부울경 통합